

초등교사 임용절벽... 광주 내년 10명 뽑는다

학령인구·퇴직 인원 감소 정원 감축추세 이어질 듯 전남은 지난해보다 80명 줄어든 240명 선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선발할 공립 초등학교 교사 인원을 올해보다 줄여줄 것이다. 광주에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 '임용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전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선발인원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집 공고한 2020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학교원 선발 인원은 3916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9학년도 모집 인원 4032명보다 116명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보다 80명 줄어든 240명(장애 16명·지역구분 모집 51명)을

선발한다. 122명이 감소한 충남(278명 선발)과 111명 줄어든 경기(980명 선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이어 경북은 33명 줄어든 379명, 세종은 30명 줄어든 100명, 강원은 21명 줄어든 251명, 전북은 20명 줄어든 86명, 경남도 20명 줄어든 21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은 올해보다 120명 늘어난 335명을 선발하고, 울산은 100명 증가한 180명, 대구는 40명 늘어난 100명을 뽑는다. 인천과 제주 각각 36명, 30명 늘어난 116명, 80명을 선발키로 했다. 서울은 변

동 없이 370명을 선발한다.

광주지역은 이번에도 초등교사 임용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2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 광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은 10명(장애 1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광주는 2015학년도까지 125명을 선발하다가 2016학년도부터 2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급기야 2018학년도 사상 최초로 한 자릿수인 5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올해와 내년 학기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두 자릿수를 겨우 회복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퇴직 인원이 줄면서 교육부가 전체 교원 정원을 매년 감축하고 있어 초등교사 임용절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광주지역 공립유치원 신규교

사 선발 인원은 증가했다.

매입유치원 등 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6명 증가한 37명(장애 3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의 광주에서는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11명(장애 1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21명(장애 1명)을 선발한다. 전남에서도 유치원 교사 67명(장애 4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6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31명(장애 2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시험은 11월 9일, 2차 시험은 2020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30일 발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D카페'와 'HAIR. #.D'

동강대, 현장 경험 위한 교내 실습장 개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재학생들의 원활한 현장 경험을 위해 교내에 실습장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바로 'D카페'와 'HAIR. #.D' <사진>다.

'D카페'는 호텔관광과 등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 'HAIR. #.D'는 뷰티미용과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 영업장으로도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꿈을 위한 공간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동강대학교 기숙사 '동강생활관' 옆에 최근 문을 연 'HAIR. #.D'는 뷰티미용과 졸업을 앞둔 김지성·진민지(20)등 학생 2명이 공동대표다. 또 3명의 직원도 같은 과 친구들이다.

이들은 올해 학교 창업동아리 '뷰아트'를 결성하고 '샴푸 브러시' 아이템으로 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됐다. 내진건에 창업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두 공동대표는 미용에 관심이 많아 인문계 고교 시절부터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을 땀고 미용 국제기능대회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해

수습 아르바이트 경험도 풍부해 솜씨 운영이 생소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학교와 학과 교수님 도움을 받아 여전한 사장님이 됐다. 하지만 이들이 창업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은 후배들에게 좀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주고 싶어서다. 이들의 바람대로 매달 정기적으로 뷰티미용과 재학생 실습이 'HAIR. #.D'에서 진행된다.

김지성 공동대표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활용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후배들이 편하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D카페'는 2018년 9월 학생회관 1층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저렴한 가격과 질 높은 음료 서비스를 위한 무인 주문 시스템으로 항상 북적인다. 하지만 'D카페' 역시 호텔관광과 학생들이 바리스타, 관련업계 CEO 등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실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음악회 참가자 모집

개인·단체 30일까지 접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음악회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 9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4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개인이나 단체(학생 문화예술동아리)로, 참가부분은 음악 전 부문(독창, 독주, 앙상블, 실내악 등), 방송댄스, 밴드, 오케스트라, 연극, 합주, 풍물 등이다. 경연 우수자에게는 기념패와 상품(도서문화상품권)이 수여되고, 공연 참가자에게는 참가경비와 4시간 이내 봉사활동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참가신청 및 접수는 학교에 내한 공문을 참고해 공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교육혁신전략 전공 연계 창의융합 비교과 프로그램인 '사회 맞춤형 사제동행 전공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지역기업들과 연계해 진로역량 강화 및 전공학습능력, 창의 융합적 문제해결능력, 진로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지원내용은 ▲공모전 및 동아리 활동 관련 재료비 ▲전공 관련 견학 등 활동비 ▲동아리 활동 관련 사무에 사용되는 물품 및 인쇄비 등이다. 사회맞춤형 사제동행 전공 동아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사회맞춤형 동아리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 창업 모의 IR 워크숍

조선대 지원센터, 스타트업 전문투자자 멘토링 '눈길'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센터장 김홍남)가 오는 21·22일 화순군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을 통한 스포츠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하나로 '2019 스포츠산업 창업 모의 IR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스포츠산업 창업 모의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를 위한 홍보) 워크숍은 스포츠산업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스포츠산업 스타트업의 IR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포츠산업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지식전달식 강의가 아닌 수도권과 지역의 엑셀러레이터와 엔젤, VC 등 스타트업 전문 투자자들이 참석해 스타트업들과 멘토-멘티가 되어 실질적 IR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

세부적으로는 모의 IR 첫째 날부터 참가 기업별 모의 IR 발표와 모의 평가 및 5인의 평가위원회에 실시간 코칭을 받아 발표자료를 수정하는 시간을 갖고, 둘째 날에는 다른 5인의 평가위원회에 모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참여한 기업과 멘토들이 함께 네트워킹파티를 이어간다.

워크숍 참가 신청과 더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조선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한 '지역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 선정돼 5년간 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올해도 재선정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초등 지필고사 중심→과정 중심 평가 안착 나서

현장 교사들 역량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지필고사 중심의 초등 학교 평가에서 벗어나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역량강화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도 '초등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학기 첫 연수는 지난 4일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으며, 연말까지 10개 교육지원청 582명의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반기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연수 방법의 효율성, 연수 과정의 적절성을 보완해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019학년도 전남 초등 학생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일선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총 13차례 12개 교육지원청 874명의 초등교원이 직무연수를 이수했다.

위경중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배움 중심의 수업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동부 센트레빌 상가
매매 및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매매 - 6억5000만원(대출 2억5천만 포함)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 문의. 010-6834-7400

